

# 영화 '모두의 집'에 투영된 설계와 시공 간 갈등, 그리고 화해

사업 참여자의 문화와 계층, 연령에 따른 갈등 요소를 따뜻한 시각으로 영화화

장철기 한남대학교 교수 ckchang@hnu.kr

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갈등을 주요 소재로 한 미타니 코키 감독의 모두의 집(みんなのいえ, All about our house).

크든 작든 건설사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사업 수행 방식에 따라 각 참여자의 참여 시기, 역할 및 책임 등이 달라지게 되지만, 참여자간의 갈등은 건설사업 수행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참여자의 갈등 중 대표적인 것이 설계자와 시공자의 갈등이다. 설계자와 시공자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에 의한 갈등 이외에도 설계자와 시공자가 살아온 문화, 계층, 연령 등 배경에 따라 각자가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사용하는가<sup>1)</sup>에 따라 갈등이 배가되기도 한다.

## 사업 수행 역량 중심의 계약자 선정

2001년에 개봉한 미타니 코키 감독의 <모두의 집>(みんなのいえ, All about our house)은 설계자와 시공자의 갈등을 주요 소재로 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한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이다. 이 영화에서는 평생 살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젊은 일본인 부부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화려하고 개방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설계자와 견고한 일본 전통 가옥을 짓고 싶어 하는 시공자의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발주자인 젊은 부부는 평생 살 집을 짓는 것이



니 만큼 현대적인 디자인을 기대하며, 일전에 자신들의 가구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 야니기사와에게 설계를 부탁한다. 설계자인 야니기사와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일해 온 가구 디자이너로서, 주택을 설계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쯤 주택 설계를 해보고 싶었기에 들뜬 마음으로 설계를 맡기로 한다. 한편, 시공은 평생을 목수로 일해 온 아내의 아버지가 맡기로 했다. 그는 딸의 집을 직접 짓는다는 사실에 들떠 함께 일했던 동료들

1) 이를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근접공간지각학'이라고 하였다.

을 모두 모은다. 50여 년 간 목수로 살아오면서 시공해보고 싶었던 것을 발주자인 딸의 집을 통해 실현하고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임한다.

미국식 교육을 받아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기존의 틀에 구애받지 않는 신세대 가구 디자이너인 설계자와 일본에서 50여 년 간 목수로서 일하면서 일본식 사고와 전통적 사고에 익숙한 노인인 시공자는 집을 설계하고 짓는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를 무시하며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사사건건 갈등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식 교육을 받아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기존의 틀에 구애받지 않는 신세대 가구 디자이너인 설계자와 일본에서 50여 년 간 목수로서 일하면서 일본식 사고와 전통적 사고에 익숙한 노인인 시공자는 집을 설계하고 짓는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를 무시하며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사사건건 갈등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 갈등의 징조, 첫 만남

설계를 담당할 디자이너 야니기사와와 시공을 담당할 아버지의 첫 만남. 약속 시간에 늦은 젊은 디자이너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노인과는 달리 고개를 뺏뺏하게 하고 악수를 청한다. 서양식 인사를 하는 젊은 디자이너, 명함을 한손으로 받아 곧장 안주머니에 넣어버리는 행동... 앞으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일어날 동·서양, 신·



미국식 신세대 설계자와 일본식 구세대 시공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를 무시하며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사사건건 갈등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구 갈등의 시작을 알린다.

### 경험

**관련법에 미숙한 디자인 :**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 안을 자신 있게 펼쳐 보인다. 고칠 게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러나 디자인을 본 아버지의 인상은 찌푸러지며 미술대학 출신은 안 되겠다는 표정이다. 관련 법규를 맞추지 못한 위법 건축이 되어 난감해 한다. 부부가 의뢰한 토지는 1종 저층 주택적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디자이너가 제안한 높이의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 디자이너는 관련 건축 법규에 대해 미숙함이 많다. 이로 인해 시공자는 경험이 적은 디자이너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서재의 등 :** 디자이너는 서재에 설치할 등을 미국의 유명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자주 사용한 등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시공자인 아버지는 지금 발주해도 공기를 맞추지 못한다며 현재 구매 가능한 등에서 고르자고 한다. 시공자인 아버지는 납기에 시간이 소요되는 아이템의 경우 진작 알려주어야 함을 지적하며 설계자의 공사 기간에 대한 물이해를 따지지만, 디자이너는 공기를 맞추는 것은 시공자의 일이지 않느냐며 당초에 제안한 등을 고집한다.

### 신(新) vs. 구(舊)

**컴퓨터상의 도면 :** 디자이너가 컴퓨터로 보여주는 도면이 시공자인 아버지에게는 신기하다. 시공자는 대들보를 추가한다. 디자이너는 대들보는 필요 없다고 하나, 시공자인 아버지는 어찌 대들보 없는 집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남향 화장실 :** 남향으로 배치한 화장실의 위치에 대해 시공자인 아버지는 화장실은 현관과 가까워야 하고, 화장실에는 햇빛이 들 필요가 없다며 현재 남쪽에 배치된 화장실을 북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며, 역시 초보는 다르다며 빈정댄다. 이에 디자이너는 화장실이야말로 햇빛이 들어야 하고, 화장실이 어두워야 한다는 발상이 낡았다고 대응한다.

### 동(東) vs. 서(西)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현관문** : 시공자인 아버지는 이제껏 안쪽으로 열린 현관문은 본 적이 없으며, 일본 가옥 특성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깥열림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디자이너는 안쪽으로 열리는 문은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미국 스타일이라고 열변한다. 이에 일본인인 아버지는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화를 내면서, “미국 목수에게 맡기라”고 하며 나가 버린다. 이후 시공 단계에서 시공자는 디자이너와 상의 없이 바깥으로 열리게끔 문을 설치해 버린다.

**인치로 치수가 표기된 도면** : 설계자가 준비해 온 인치로 표기된 도면을 보자 아버지는 이제껏 인치로 된 도면으로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난감해 한다. 이에 디자이너는 집은 서양 식이면서 척(尺)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그러니까 미니 어처 하우스 같은 집 밖에 못 만들고, 이래서 일본의 건축이 발전을 못한다고 빈정댄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재는 척으로 되어 있는데, 인치로 자르면 번거로워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냐고 항변하지만, 디자이너는 필요한 번거로움이니 감수하라고 말한다. 이때 건축사인 스가가 척으로 되어 있는 자재를 인치로 가공해서 사용할 경우 재료의 손실이 많아져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게 됨을 발주자에게 잘 설명한다.

### ‘모두의 노력으로 하나의 집이 완성된다’

디자이너가 생각하고 있던 거실 모퉁이 부분의 마감 재료로 인해 둘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디자이너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름은 모르지만 기억이 뚜렷한 어떤 재료(대나무 타일)를 사용하고자 했으며, 이에 시공자인 아버지는 일본의 고전적인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게 되고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 아울러 설계자인 야니기사와도 고민을 하던 중 들른 어느 칵테일 바에서 소금이 조금 더 묻었다는



모두의 노력으로 하나의 집이 완성된다.

이유로 칵테일을 버리고 새로이 만들어 제공하는 직원의 “제 문제입니다”라는 말에 본인의 행동을 돌아 보게 된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날, 누수를 확인하러 간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두 사람 다 자신이 맡은 건축물에 진심 어린 정성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된 순간, 그 동안의 고집이 건물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모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생각이 진정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공자인 아버지도 디자이너가 추구하던 것이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틀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건축물을 위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 한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된다.

우여곡절 속에 집이 완공되어 갈 때쯤, 참여자들은 그 집이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모두의 노력으로 하나의 집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락에 ‘일본 · 구세대 · 목수’를 대변하는 아버지의 떡매김 도구와 ‘미국 · 신세대 · 디자이너’를 대변하는 디자이너의 만년필, 그리고 집 주인인 젊은 부부의 사진을 함께 놓음으로써 모두의 집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 **END**